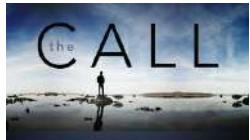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SARANG ON

사명, Calling the Reason I Live

Reading 요한복음 20:21-23 _[본문 세 번 이상 읽기]

-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Thinking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19, 2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21절)

_예수님께서는 부활 첫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Calling)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더불어 함께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22-23절)

_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은, 제자들의 힘 만으로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제자들이 새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봐요.

_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Calling)’을 주시며 제자들이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속 계획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4.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일을 적어보세요.

_청소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다보면, 내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 잊지 말고, 사명자라는 깨어있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깊게 교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 청소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Praying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중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